

## 시로 어루만진 지리산의 상흔

《지리산》 펴낸 이성부씨



이성부씨

창작과비평사/B6변형/160면/7000원

이성부 시인(59)이 펴낸 《지리산》(창작과비평사)은 지리산에 바치는 시집이다. 수록된 모든 시편들이 '내가 걷는 백두대간'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중산리, 제석봉, 칠선굴, 세석고원, 벽소령, 반야봉, 노고단 등 그가 지리산 구석구석을 1백여 차례나 오르면서 쓴 시편들이다.

“지리산은 크고 장엄합니다. 지리산 속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고 좋았어요. 지리산에 가지 않으면 팔다리가 쭈시더라고요. 산에 다녀와야 얼마간이 편안했습니다.”

## 지리산에서 잠든 영혼을 위한 '위령제'

혹자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산으로 간다고 했지만, 이씨는 “그 산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리산으로 갔다. 이번 시집에 실린 시들이 지리산을 오르내리며 얻은 깨달음과 자기성찰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들은 그가 지리산에서 얻은 것이 '홀연한 깨달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웅변해준다. 그는 지리산 능선과 계곡 곳곳마다 서려 있는 역사가 남긴 상흔을 목격하고 어루만졌다. 지리산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정순덕을 만나고(《정순덕에게 길을 묻다》), 이 태의 《남부군》에 나오는 어느 소녀 전사의 자취를 더듬으며 “자유가 이토록 비싸게 나를 울린다”(《소녀전사의 악약 청학이골》)고 부르짖기도 한다. 이 시집은 지리산에 뼈를 묻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시인이 지내는 위령제인 셈이다.



그토록 뛰는지, 제석봉의 고사목들이 왜 이 산에서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의 부릅뜬 눈으로 보이는지, 그 까닭을 캐기 위해 끝없이 지리산을 찾았는지도 모르죠.”

1980년 5월은 그에게 펜을 놓게 했다. 고향 광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말과 문자로 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싹텄다.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는 지리산으로 갔다. 현실 도피를 위해 산에 올랐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의 급격한 경사를 타면서 자기를 확대했다. 그의 산행은 “비겁함으로부터 시작되고 강행”된 것이었다.

## 산을 타는 것은 곧 시를 쓰는 것

그러나 어느 날부터 지리산은 그에게 시를 돌려주기 시작했다. 지리산을 오르내리며 폭력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시세계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긍정적으로 변모했다. 이번 시집에 담긴 그의 시는 날 선 봉우리가 아닌 부드러운 능선을 닮아 있다. 이는 그가 산으로부터 “하늘이 울어도 산은 울지 않는다는 / 크고 넉넉한 마음”(《남명선생》)을 배웠기 때문이며 “사람도 큰 산에 숨으면 / 그 산을 닮아 더욱 커져가는 것”(《다시 남명선생》)을 알았기 때문이다. “턱을 쌓고 넓히고 베

“무박이건 1박 2일이건 며칠이고 그 산에 파묻힘으로써 새로운 활기를 얻었습니다. 중산리에서 쳐다보이는, 천왕봉 아래에 걸친 흰구름에 왜 가슴이

풀어 /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 무엇 하나 미워하지 않음으로써 / 스스로 잠잠하여 마르기만 할 뿐이다”(《제석봉》)는 시구는 그가 지리산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지리산의 넉넉함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는 꼭 이래야 한다는 생각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써지는 대로 씁니다. 붓이 산의 굽이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이씨는 20년 가까이 산을 탔다. 휴일이면 어김없이 산으로 갔다. 산을 타며 그는 시 쓰는 일과 산 타는 일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통해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쁨과 희열은 더 컸다. 시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치열한 과정을 거쳐 맺어진 시가 더 아름다웠다.

“시를 쓰는 것과 산을 타는 것은 정신의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죠. 고도를 높여갈수록 정신은 더 맑아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또한 이 일에는 관중도 없고 박수소리도 없죠. 오로지 자신과의 묵묵한 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시인은 백두대간을 종주할 계획이다. 이번 시집은 그의 백두대간 종단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시인은 앞으로 덕유산과 소백산을 소재로 한 시집과 태백산과 설악산을 소재로 한 시집을 계속해서 펴낼 예정이다. 이어지는 그의 시집들이 과연 어떤 '진경'을 펼쳐 보일지 자못 궁금해진다.

- 최갑수 기자